

## 내담자의 방어성에 따른 상담 상호작용 형태와 작업동맹

신 희 천      이 장 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방어성에 따른 상담 상호작용 양상과 작업동맹의 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상호작용 형태와 작업동맹의 상관을 살펴본 후, 내담자의 방어성에 따라 작업동맹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내담자들 중에서 연구에 협조하기로 동의한 30명을 대상으로, 초기 3회기를 수집하여 그 중 한 회기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상담사례는 축어록으로 작성된 후 Penman 분류도식(1980)으로 부호화되었다. 각 언어반응 유목의 기본율과 상담자의 반응에 후속하는 내담자의 반응의 유목연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Kappa값을 구한 뒤, 각각 작업동맹 점수와의 상관을 구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어성과 관련하여, 첫째 내담자의 방어성 수준에 따라 동일한 상담자 반응이 작업동맹과 각기 다른 상관을 보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높은 대인권력을 지닌 유목인 상담자의 '주도' 반응의 경우, 방어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작업동맹과 부적의 상관을 보인 반면, 방어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작업동맹과 정적의 상관을 보였다. 둘째, 작업동맹의 형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기여하는 반응 유목이 방어성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셋째, 방어성의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유목연계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방어성의 수준에 따라 작업동맹 측정치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방어성에 따른 일관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가 성공적인 상담에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많은 연구자들

이 동의하고 있다(Gelso & Carter, 1994). 상담관계는 여러가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작업동맹(working alliance), 전이(transference), 그리고 진실한 관계(real relationship)로 구성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Gelso & Carter, 1994; Sexton & Whiston, 1994). 이 중에서 '작업동맹'은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동민, 1993; 김선경, 1992; 김지은, 1994; 방기연, 1991; Kivlighan & Schmitz, 1992; Kokotovic & Tracey, 1990; Rean-deau & Wampold, 1991 등).

작업동맹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작업동맹과 상담성과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었다. 각각의 연구에서 작업동맹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다르고, 각기 다른 작업동맹 측정치가 사용되었지만, 작업동맹과 상담성과 측정치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Horvath & Greenberg, 1989 등). 이처럼 작업동맹이 상담의 효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작업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작업동맹의 질이 세 가지 요인 즉,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내담자의 상담전 특성, 그리고 상담자의 기술적 행위의 함수라고 제안한다(Al-Darmaki & Kivlighan, 1993; Kivlighan, 1990). 작업동맹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된 세 가지 요인과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탐색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 중 첫째로,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과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의 수는 매우 적다.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중 주로 연구된

측면은 상담자의 훈련수준으로, 상담자의 훈련수준에 따라 작업동맹의 하위 구성요인인 목표 및 과제차원에서는 차이가 뚜렷하지만, 유대차원에서는 별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Mallinckrodt & Nelson, 1991). 한편, 상담경력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협력관계 형성에 더 안정적이며, 상담자의 경력요인은 내담자의 상담협력관계 지각보다는 상담자의 상담협력관계 지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다(강혜영, 1995).

둘째로, 많은 연구들이 내담자의 특성과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대인간 관계의 질(Moras & Strupp, 1982), 적응수준(Kokotovic & Tracey, 1990), 대상관계의 질(Pipper, Azim, & Joyce, 1991), 애착 혹은 심리적 분리수준(Diedan, Findley, & Kivlighan, 1990) 등과 같은 내담자 특성이 작업동맹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다. 내담자 특성과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검토한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내담자의 특성 중에서 대인간 기능의 질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셋째로, 상담자의 기술적 행위와 작업동맹의 강도간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이 있다. 한가지 유형은 상담자의 개입유형과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인데 (방기연, 1991; Kivlighan, 1990; Kivlighan & Schmitz, 1992), 이들은 주로 상담자의 언어반응 양식과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거나 상담자의 언어반응 의도와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또다른 유형은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상호작용적 조망을 토대로 하여 언어적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고 작업동맹과

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다(김동민, 1993; 김선경, 1992; 김지은, 1994; Reandeanu & Wampold, 1991).

이상의 작업동맹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작업동맹은 효율적인 상담성과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작업동맹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들(상담자의 개인적 변인, 내담자의 상담전 특성 그리고 상담자의 기술적 행위)은 각각 작업동맹의 강도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업동맹이 형성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업동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Kivlighan & Schmitz, 1992). 즉, 작업동맹의 강도가 세 가지 요인의 함수로 결정된다고 할 때, 세가지 요인 각각이 작업동맹의 형성에 기여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각의 요인들이 어떻게 맞물려 작업동맹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면 작업동맹의 형성에 관한 더욱 정제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업동맹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측면, 내담자 측면, 그리고 상담 상호작용 측면을 포함하여 작업동맹의 형성을 이해하려는 경험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Horowitz, Marmar, Weiss, DeWitt & Rosenbaum, 1984).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동맹의 강도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 중 내담자 특성요인과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 요인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작업동맹의 형성과정을 좀더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분석하고 작업동맹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 1. 내담자의 상담전 특성과 작업동맹

작업동맹은 상담자와 내담자 상호간의 관계에서 확립되는 것이지만, 상담을 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성들이 작업동맹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된다(Kokotovic & Tracey, 1990). 내담자들은 일반적으로 작업동맹을 확립하는 능력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Strupp은 성공적인 상담사례와 비성공적인 상담사례를 비교 분석한 일련의 연구로부터 내담자의 상담전 특성이 작업동맹과 상담성과를 예언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Strupp, 1980a; 1980b; 1980c; 1980d). 그리고 이들 연구에서 상담자의 기술이나 태도가 작업동맹의 형성과 긍정적인 상담성과를 이루는데 부분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내담자의 변인이 상담자의 역할을 압도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Ryan & Cicchetti, 1985).

한편,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상담 초기의 작업동맹의 질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 작업관계가 건전하지 못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Maziali(1984)는 작업동맹과 성과간의 관계가 1회 또는 3회와 같은 상담의 초기에 결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Hartley와 Strupp(1978)은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사례에서는 상담초기에 작업동맹의 질이 높아지는 반면, 부정적 성과를 보인 사례에서는 작업동맹의 질이 낮아짐을 발견하였으며, 상담의 중기와 말기에서의 작업동맹 평정은 상담성과를 잘 예언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연구자들은 상담의 초기단계가 작업동맹을 발달시키고 성과를 예언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결론 내렸다(Horowitz

et al., 1984). 작업동맹이 상담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담 초기에 작업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상담성과를 거두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빈약하게 형성된 작업동맹을 상담 초기에 탐지하는 것은 상담자로 하여금 문제를 재검토하고 상담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욱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약한 동맹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내담자를 탐지하는 것은 내담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상담자가 작업동맹을 예언하는 내담자의 특성을 빨리 알아차리게 되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을 더 잘 인식하게 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Zetzel(1956)은 대인간 기능의 질과 방어성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내담자의 자아의 기능이 작업동맹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결정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담자의 방어성은 작업동맹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방어적인 내담자는 상담에 몰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상담자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Gaston, Marmar, Thomson, & Gallagher, 1988). 따라서 내담자의 이러한 특성은 단기 역동치료에서 주요한 내담자 선별 기준으로 여겨졌다(Horowitz et al., 1984; Malan, 1976).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내담자 특성 중 대인간 기능의 질과 작업동맹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지만(Pipper et al., 1991; Muran, Segal, Samtag, & Crawford, 1994), 방어성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Pipper, Decarufel, 그리고 Szkrumelak(1985)은 내담자가 사용한 방어양식을 7점 척도상에서 평정해, 방어성이 경미한 내담자일수록 상담과정에서 덜 저항하며 더 좋은 상담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했다. Gaston, Marmar, Thompson, 그리고 Gallagher 등(1988)은 다양한 심리치료에서 여러가지 내담자의 치료전 특성과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내담자의 높은 방어성이 낮은 치료적 동맹과 관련됨을 보였다. 한편 Foreman과 Marmar(1985)의 연구에서, 상담과정에서 높은 강도의 작업동맹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방어성을 다루어 주어야 함을 보였다. 초기에 낮은 작업동맹을 형성한 내담자 중에서 치료 회기가 지남에 따라 동맹의 강도가 호전된 내담자와 동맹의 강도가 계속 낮은 상태로 머물렀던 내담자의 상담과정을 비교해 본 결과 상담자가 내담자의 방어성을 다루어 주었을 때 동맹이 강화됨을 발견하였다. 또한 McCullough, Winston, Farber 및 Porter(1991)는 내담자의 방어에 뒤이은 상담자의 개입은 치료적 성과와 부적으로 상관됨을 밝혔다. 이처럼 내담자의 방어성은 치료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방어성과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상담자-내담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작업동맹

작업동맹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구성요인에 상담자의 기술적 행위가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상담자의 기술적 행위란 상담과 내담자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상담자의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Kivlighan, 1990). 상담자의 기술적 행위가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상담자의 개별적인 언어행동과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고(방기연, 1991; Kivlighan, 1990; Kivlighan & Schmitz, 1992), 다른 하나는 상담자-내담자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형태의 특성과 작업동맹과의 관계를 탐색한 것이다(김동민, 1993; 김선경, 1992; 김지은, 1994; Reandean & Wampold, 1991).

이 두 가지 유형의 연구를 비교해 볼 때, 상담자가 치료과정에서 작업동맹에 기여하는 일방향적 영향(one-way-influence)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교류의 연속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상담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상담과정을 상담자와 내담자 어느 한쪽만이 아닌 상호작용적 관계를 통해 설명하기 때문이다.

비록 상담과정을 상호작용적 조망하에서 분석한 기존의 연구가 일방향적인 영향만을 고려한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담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안고 있는 제한점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양자간의 상호작용적 관계형태에만 관심을 두므로, 모든 상담관계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질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 획일성의 신화'에 빠질 우려가 있다(Muran, Segal, Samtag, & Crawford, 1994). 동일한 언어적 상호작용 형태라도 내담자와 상담

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상호작용적 관계의 특징을 내담자와 상담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때, 상담의 실재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대한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내담자의 상담 전 특성인 방어성 수준과 작업동맹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방어성의 수준에 따라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특징적인 교류형태를 보일지를 검토한 뒤, 특정한 교류형태와 작업동맹의 강도와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상담 상호작용의 결과 최종적으로 내담자의 방어성에 따른 작업동맹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상담사례수집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 18명의 상담자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남자 8명, 여자 10명. 상담경력은 1년에서 7년). 내담자들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학생들로서 이들의 호소문제는 주로 성격 및 적응상의 문제, 진로, 대인관계의 문제였다. 심리검사상 장애정도가 심각하거나 녹음과 질문지의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연구에 동의하여 참여한 내담자들은 남자가 22명, 여자가 8명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작업동맹 질문지(WAI)

이 질문지는 작업동맹에 관한 Bordin의 이론에 따라 Horvath와 Greenberg(1986; 1989)가 제작한 36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이 질문지는 목표 합의(goal), 과제 동의(task), 유대(bond)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Horvath와 Greenberg(1989)는 이를 7점척도로 개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7점척도를 사용하였다. 작업동맹 질문지는 상담자용과 내담자용, 그리고 관찰자용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용과 내담자용을 사용하였다. 27사례에서 측정된 내담자용 WAI의 신뢰도 계수(Cronbach)는 .92였고, 26사례에서 측정된 상담자용 WAI의 신뢰도 계수는 .94였다(강혜영, 1995).

## 2) K척도

MMPI K척도는 오래 전부터 개인의 방어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Grayson & Olinger, 1957; McKinley, Hathaway, & Meehl, 1946). 적응상의 곤란을 보이는 정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Heilbrun(1961)과 Nakamura(1960)는 K척도가 방어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을 입증하였다.

K점수를 방어성의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는 피검사자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적응적인 정상인들에게서 K척도의 높은 점수는 방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적응상에 곤란을 보이는 집단에서의 높은 K점수는 방어성을 나타낸다(김중술, 1988; Paulhus, 1991). 최근에 최윤경, 임영란, 박병관, 안창일, 최정윤 및 김재환(1993)은 MMPI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남자(정신과 환자), 여자(환자, 정상인, 대학생) 모두에서 제3요인으로 '방어성'이 추출되었으며, K척도는 이들 요인과 높은 요인부하량(각각 -.81, -.82, -.71, -.54)을 보임을 보고한 바 있다.

K점수가 높은 경우(T>65), 방어적 성질을 띤 적절성 혹은 적응적 외형을 강조하고, 타인들과 깊은 정서적 친근성을 두려워하고, 자기 노출에 조심성이 있는 피검자인 경우가 많다. 한편, K점수가 낮은 경우 (T<45), 문제해결 능력이 제한되고,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피검자일 수 있다. 중간 점수대(55 < T < 65)의 사람들은 잘 적응하고, 통찰력이 있고, 독립적이며, 자기노출과 자기보호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피검자로 해석될 수 있다(김중술, 1988).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K척도를 사용하여 방어성을 측정하였다(Butcher, 1994; Elder & Johnson, 1989 등). 이들 연구에서는 K척도의 값을 연속변인으로 사용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보거나, K척도상에서 점수의 고저에 따라 각각 방어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는 분류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K척도의 값을 단일 차원상에서 해석하거나 단순히 고, 저로 나누어 방어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분류법은 방어성의 성질을 적절히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Ries(1966)는 K척도를 높은 K점수와 낮은 K점으로 나누지 않고, 중간 K점수와 극단적인 K점으로 분류하여 치료적 예후를 살펴본 결과, 극단적인 K점수(원점수가 9 이하, 15 이상)를 보인 집단에서는 치료적 예후가 좋지 않았던 반면, 중간 K점수(원점수 9-15)를 보인 집단에서는 좋은 치료적 예후를 보임을 발

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K점수의 의미 해석과도 일치하는데, 높은 K점수는 심리적 정서적 취약함에 대한 방어성을 반영하며, 매우 낮은 점수는 적응에 필요한 만큼의 방어도 취하지 못하는 자기 비판적인 성향을 가리키고, 중간범위의 점수는 현실에 기초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사람이라는 해석이 적절함을 시사한다(Dahlstrom, Welsh, & Dahlstrom, 1972).

본 연구에서는 MMPI K척도를 사용하여 내담자의 치료적 특성인 방어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MMPI K척도를 방어성의 측정치로 사용한 이유는 MMPI K척도가 방어성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도구이고 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MMPI검사는 많은 상담 및 심리

치료 기관에서 널리 사용하는 검사이므로, MMPI K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가 상담 현장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 3) Penman 분류도식

Penman분류도식은 대인권력(power)와 대인관여(invovement)라는 두 차원에 따라 언어 반응을 분석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여기서 대인권력은 대인관계에서의 영향력을 의미하고, 대인관여는 우호성, 사회성, 동의, 결속 등을 의미한다. Penman분류도식(Penman Classification Scheme: PCS)은 상호작용 참여자가 특정한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자의 언어반응을 부호화 한다.

PCS의 각 언어유목은 대인권력과 관여라는

〈그림 1〉 Penman 분류도식의 상대적 위치

대 인 권 력	고    저	거부 REJECT	통제 CONTROL	주도 INITIATE	공유 SHARE
		반대 COUNTER	저항 RESIST	제공 OFFER	협력 COLLABORATE
		회피 EVADE	유보 ABSTAIN	요청 SEEK	순종 OBLIGE
		철수 REMOVE	단념 RELINQUISH	복종 SUBMIT	매달림 CLING
		부정적		긍정적	
대인관여					

두 차원에 따라 배열되는데 수직축은 대인권력을, 수평축은 대인관계 수준을 나타내는 교차축(matrix)상에서 부호화된다. 잠재적 수준에서의 언어유목은 거부, 통제, 주도, 공유, 반대, 저항, 제의, 협력, 회피, 유보, 요구, 순종, 철회, 단념, 복종, 매달림 등 16개 유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목체계의 평정자간 일치율은 70% 정도로 보고된 바 있다(Penman, 1980).

### 3. 연구절차

연구협조에 동의한 상담사례를 1회부터 3회까지 녹음하고, 매 회기가 끝난 후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각 작업동맹질문지(WAI)를 작성하게 하였다. 수집된 사례는 총 30사례이며, 회기별로 살펴보면 1회기가 9사례, 2회기가 10사례, 3회기가 11사례이다. MMPI K점수에 따라서 상위( $T \geq 65$ )/중위( $45 < T < 65$ )/하위( $T \leq 45$ )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집단별 사례수는 상위 6사례, 중위 12사례, 하위 12사례이다.

녹음된 상담내용은 축어록으로 작성되어 훈련된 평정자들이 Penman분류도식에 따라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4명의 평정자들(상담전공 석사수료자 1명, 석사과정생 3명)이 3회에 걸쳐 예비자료를 가지고 연구자와 함께 사전 평정훈련을 하였고, 평정자간의 일치율이 적정한 수준에 이르렀을때(Cohen's kappa=.78) 축어록의 평정에 들어갔다. 평정자간 평균 평정 일치도(Cohen's kappa)는 .70이었다.

### 4. 분석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보

기 위해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상담자와 내담자의 각 언어반응 유목의 기본율(base rate)을 조사하였다. 유목의 기본율이란 모든 유목의 총 발생빈도수에 대한 특정 유목의 발생빈도수의 비율을 말한다. 기본율을 구한 뒤, 상담자 내담자 각각의 기본율과 작업동맹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을 보기 위해 연계분석(sequenti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계분석에서 먼저 상담자의 언어반응 유목과 내담자의 언어반응 유목이 우연발생 확률 이상으로 유의미하게 연계되는 단위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금명자(1994)의 기준에 따라, 상담자의 언어반응 유목과 내담자의 언어반응 유목으로 구성된 연계쌍의 평균 Kappa T계수가 .10 이상이고, 사례당 Kappa T계수가 최소한 .10 이상인 사례가 과반수 이상일 때 유의미한 연계패턴이 존재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특정 유목연계가 작업동맹과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Kappa T값과 작업동맹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구했다. 유목연계는 본래 각 사례에 걸쳐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언어반응 유목연계와 작업동맹간의 상관관계를 집단간 차이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집단에 걸쳐 공통적인 유목연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전체사례 중 과반수 이상의 사례에서 유목연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단 상위 K집단의 경우 집단 전체의 사례수가 적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사례에서 유목연계가 나타나는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끝으로, 내담자의 특성별로 집단을 나눈



후, 각 집단별로 작업동맹의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를 MANOVA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 연구결과

상위 K집단( $K \geq 65$ )에서 K점수의 평균은 69.8이고, 표준편차는 5.27이다. 중위 K집단( $65 > K > 45$ )은 평균이 54.6이고, 표준편차는 5.69이다. 하위 K집단( $K \leq 45$ )의 평균은 40.5이고, 표준편차는 4.5이다.

### (1) 언어반응 유목의 기본율에 대한 분석

K집단별로 상담자 및 내담자의 기본율을 비교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는 가장 높은 기본율 순으로 여섯 가지 유목의 기본율을 제시하였다. 원래 기본율은 각 상담회기 마다 얻어지는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의 집단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보아 집합적

기본율(aggregated base rate)을 분석했다.

### (2)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유목의 기본율과 작업동맹간의 관계

표 2에서 K집단별로 작업동맹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언어반응 유목을 제시하였다. 작업동맹은 상담자점수와 내담자점수를 구별하였으며, WAI의 하위차원인 목표, 과제, 유대 및 총점상에서 언어반응과의 상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할 사실은 상담자의 동일한 언어반응일지라도 K집단에 따라 작업동맹과의 상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며, K집단별로 작업동맹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기여하는 반응유목이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 (3) 상담자-내담자 반응유목 연계

상담자의 언어반응과 내담자의 언어반응

<표 1> K집단별 기본율(base rate) 비교

	상위( $K \geq 65$ )		중위( $65 > K > 45$ )		하위( $K \leq 45$ )	
	유 목	기본율	유 목	기본율	유 목	기본율
상 담 자	주도	.405	주도	.456	주도	.451
	요청	.240	제공	.225	제공	.238
	제공	.223	요청	.162	요청	.216
	협력	.092	협력	.097	협력	.056
	공유	.030	공유	.055	공유	.037
	순종	.006	통제	.003	유보	.001
내 담 자	제공	.706	제공	.759	제공	.755
	순종	.132	순종	.089	순종	.088
	유보	.067	협력	.055	유보	.069
	요청	.041	유보	.039	요청	.029
	저항	.030	저항	.028	저항	.029
	협력	.021	요청	.023	유보	.023

〈표 2〉 K집단별 기본음과 WAI점수와의 상관(r)

		상담자				내담자			
		총점	목표	과제	유대	총점	목표	과제	유대
상위	요청(상)	.915	.976*	.935	.688	.694	.550	.816	.664
	주도(상)	-.895	-.837	-.945	-.726	-.901	-.810	-.967*	-.864
	제공(상)	.604	.507	.701	.469	.940	.947	.956*	.862
	순종(내)	.665	.335	.725	.713	.973*	.982*	.901	.980*
중위	통제(상)	-.135	-.075	-.075	-.290	-.522	-.481	-.317	-.645*
	공유(상)	-.061	-.181	-.052	.010	.568	.451	.672*	.484
	유청(내)	.433	.594*	.320	.385	.324	.375	.333	.222
	순종(내)	-.421	-.234	-.359	-.648*	-.026	-.115	.004	.025
하위	주도(상)	.688*	.579	.544	.847**	.704*	.766*	.769**	.387
	협력(상)	.841**	.683*	.799**	.866**	.513*	.515	.535	.353
	요청(상)	-.817**	-.727*	-.663*	-.937**	-.770**	-.723	-.841**	-.541
	유보(상)	-.610	-.589	-.509	-.636*	-.490	-.384	-.684**	-.272

\* : 0.05 \*\* : 0.01 \*\*\* : 0.001 (양방검증)

간에 우연확률 이상으로 연계되는 패턴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연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는 각 집단의 유목연계 중 작업동맹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유목연계를 제시하였다. K집단별 유의미 연계형태들이 평균 Kappa T값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연계형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주요 유목연계와 작업동맹간의 관계

표 4에는 Penman 분류도식에서 상담자 내담자 간의 주요언어 유목연계의 Kappa값과 작업동맹간의 상관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유목연계와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K집단별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동일한 '주도-요청' 언어반응 패턴이라 하더라도, 상위 K집단은 작업동맹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 하위 K집단에서는 작업동맹과 정적인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 5. 방어성과 작업동맹 점수

K집단에 따른 작업동맹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변량분석(MANOVA)을 하였다. 상담자의 WAI 총점과 내담자의 WAI 총점은 집단별로 차이가 없었으며(Hotellings  $p=.076$ ), 상담자의 WAI총점과 내담자의 WAI 총점 각각에 대한 변량분석의 결과 역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각각  $F(2,27) F=1.80 p=.183, F=3.08 p=.062$ ).

다음으로 상담자 및 내담자의 WAI하위 차원 점수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다중변량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Hotellings  $p=.291$ ), 개별적인 하위 WAI차원 점수의 변량분석 결과 내담자의 목표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 K집단별 유의미 연계형태

	상 위	중 위	하 위
주도 - 제공	.72 <sup>*)</sup>	.73	.66
- 유보	.33	.22	.61
- 요청	.34	.25	.23
- 저항		.12	
협력 - 협력		.38	.23
- 제공		.21	
- 순종	.50		
요청 - 제공	.72	.73	.64
제공 - 제공	.56	.70	.55
공유 - 제공		.12	.21

(주) 표안의 수치는 평균 Kappa T값임

〈표 4〉 K집단별 주요 유목연계의 Kappa값과 WAI와의 상관(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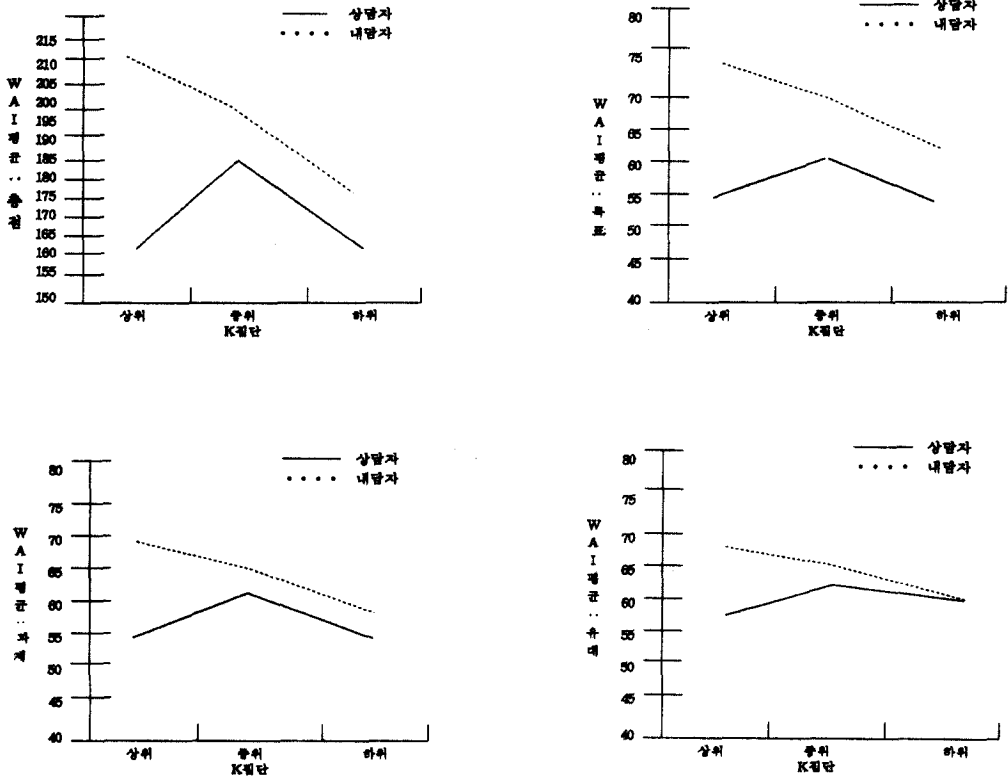
		상담자				내담자			
		총점	목표	과제	유대	총점	목표	과제	유대
상 위	주도-요청	-.874	-.987*	-.857	-.655	-.457	-.276	-.598	-.454
	제공-순종	.727	.961	.759	.405	.498	.362	.671	.420
	협력-순종	-.929	-.987*	-.932	-.719	-.630	-.469	-.752	-.617
중 위	주도-유보	.430	.461	.339	.356	-.445	-.320	-.305	-.596*
	제공-제공	-.350	-.633*	-.290	-.038	-.216	-.134	-.228	-.236
	협력-순종	.075	.073	.024	.076	.579	.367	.556	.678*
	요청-순종	-.617*	-.654*	-.615*	-.475	-.219	-.309	-.329	-.015
하 위	주도-유보	.251	.276	.088	.401	.638*	.684*	.701*	.355
	주도-요청	.594	.577	.491	.610	.607	.652*	.576	.429
	제공-저항	-.544	-.472	-.426	-.660*	-.731*	-.742*	-.748*	-.509
	제공-유보	-.179	-.197	-.018	-.351	-.562	-.711*	-.533	-.287
	제공-요청	-.333	-.323	-.174	-.492	-.573	-.634*	-.566	-.364
	요청-순종	-.334	-.312	-.191	-.4.85	-.693*	-.768**	-.636*	-.490

\* : 0.05 \*\* : 0.01 \*\*\* : 0.001

그림 2는 각 집단별 WAI 점수의 평균을 점수별로 나타낸 것이다. 상담자의 작업동맹 점수는 총점, 목표, 과제, 유대점수 모두에서 중위 K집단이 가장 높고, 상위 K집단과 하

위 K집단은 비슷한 정도로 낮은 점수를 보인다. 내담자의 작업동맹 점수는 상위 K집단, 중위 K집단, 그리고 하위 K집단 순으로 높는데, 이러한 경향은 WAI 총점, 목표, 과

〈그림 2〉 K집단별 평균작업동맹(WAI) 점수



〈표 5〉 K집단별 평균, 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상 위	중 위	하 위	차이검증 F(2,27)
상담자	목표	53.0(12.6)	58.0( 6.8)	51.4( 9.3)	2.04 <sup>a</sup> (.149) <sup>b</sup>
	과제	56.6(14.4)	63.6( 6.3)	54.2(13.3)	2.18 (.132)
	유대	58.1(13.5)	63.8( 7.8)	60.0( 9.7)	.79 (.461)
내담자	목표	72.3( 7.2)	67.5( 8.5)	60.5(11.2)	3.45 (.046) <sup>*</sup>
	과제	70.5( 7.2)	67.0( 8.8)	59.5(10.8)	3.33 (.051)
	유대	69.3( 7.4)	65.0(10.3)	60.6(10.8)	1.55 (.230)

a는 F비의 값이며, b는 유의도이다.

제, 유대점수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 논 의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상담자의 언어반응일지라도 방어성의 정도에 따라 작업동맹과의 상관 다르다는 것이다. 상담자의 '주도'반응의 경우 상위 K집단에서는 작업동맹과 부적으로

상관되는 반면, 하위 K집단에서는 작업동맹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방어성이 높은 집단에서의 상담자의 높은 대인권력 반응은 작업동맹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방어성이 낮은 집단에서의 상담자의 높은 대인권력 반응은 긍정적인 작업동맹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상담자의 '요청'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위 K집단에서는 상담자의 '요청'반응이 작업동맹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 하위 K집단에서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방어성이 높은 집단에서의 상담자의 낮은 대인권력 반응은 작업동맹의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비해, 방어성이 낮은 집단에서의 상담자의 낮은 대인권력 반응은 작업동맹의 형성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가 방어적일수록 상담자는 대인권력상에서 다소 낮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작업동맹을 형성하는데 유리하며, 내담자의 방어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 상담자는 높은 대인권력 반응으로 내담자를 이끌어 줌으로써 작업동맹의 형성을 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방어성의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연계형태가 다르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상담자의 '주도'반응에 후속하는 내담자의 반응은 방어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유보'로, 방어성이 정상범위인 집단에서는 '저항'반응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방어성이 낮은 내담자는 상담자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 주춤하고 물러서는 반응을 우연확률 이상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낮

은 방어성을 지닌 내담자가 상담자와 상호작용할 때 보이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담자의 '협력'반응에 후속하는 연계형태를 보면, 정상범위의 방어성 집단에서는 대등하게 '협력'반응을 하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많은데 비해, 방어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내담자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방어성이 정상범위인 내담자는 상담자의 '협력'반응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방어성이 높은 내담자는 '협력'반응에 '순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상담자의 '협력' 반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변화를 이끌려 하기보다는 상담자의 반응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방어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방어성이 높은 집단에서 상담자의 '협력'에 뒤이은 내담자의 '순종'의 유목연계는 작업동맹과 부적으로 상관된다는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해준다.

셋째, 주요 유목연계와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일한 상담자-내담자 언어반응 형태라 하더라도 방어성의 정도에 따라 작업동맹과의 관련성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주도-요청' 형태지만, 상위 K집단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작업동맹과 부적으로 상관된 반면 하위 K집단에서는 작업동맹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의미는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방어성 수준에 따른 작업동맹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상담자의 작업동맹은 총점, 목표, 과제, 유대 점수 모두에서 일관되게 정상범위의 방어성 집단이 가장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상범위의 방어성을 지닌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상담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작업동맹을 형성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담자의 작업동맹 점수는 방어성이 높은 집단, 정상 집단, 낮은 집단 순이며, 이러한 경향은 WAI 총점, 목표, 과제, 유대점수상에서 일관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방어성이 높은 내담자는 다른 집단의 내담자들보다 작업동맹을 높게 평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방어성이 높은 집단의 내담자가 지니는 공통된 속성, 즉 방어적인 검사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방어성 수준에 따른 작업동맹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례수의 부족과 집단내 내담자간의 방어성의 커다란 편차 그리고 상담자 변인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집단내 변량을 크게 만들었을 가능성 등으로 그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전 내담자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작업동맹의 형성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이해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작업동맹의 형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내담자 특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내담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반응의 내용에 따라 분석한 것이 아니라, 내현적이고 잠재적인 관계의 교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작업동맹이라는 상담관계를 대인권력과 관여라는 관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언어반응의 빈도를 분석하는 데서 나아가 연계분석을 함으로써 상담자 내담자 간의 언어 상호작용을 보다 구체적인 맥락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작업동맹과 관련시킴으로써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작업동맹의 형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자료수집의 한계상 상담자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작업동맹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내담자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강혜영(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의 차이분석.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금명자(1994). 상담 단계와 내담자 체험수준에 따른 상담자 개입패턴의 즉시적 성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김동민(1993). 상담 초기 작업동맹 형성에 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상호작용 연구.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김선경(1992). 상담자-내담자 초기 협조관계의 지각과 언어상호작용 유형과의 관계분석.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김중술(1988).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지은(1994). 초기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작업동맹과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방기연(1991). 상담 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자 반응 간의 관계.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 논문, 서울대학교.

- 최윤경, 임영관, 박병관, 안창일, 최정윤, 김재환 (1993). MMPI 내용척도와 성격장애척도의 구조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권 1호, 1-15.
- Al-Darmaki, F. & Kivlighan, D. M. (1993). Congruence in client-counselor expectations for relationship and the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379-384.
- Butcher, J. N. (1994). Psychological assessment of airline pilot applicants with the MMPI-2.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2(1), 31-44.
- Dahlstrom, W. G., Welsh, G. S. & Dahlstrom, L. E. (1972). *An MMPI handbook*(vol. 1).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Diedan, C. T., Findley, G. P., & Kivlighan, D. H. (1990).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 and working alliance formation. Paper presented at the 9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 Elder, R. L. & Johnson, D. C. (1989). Varying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innovation and social desirability. *Psychological Reports*, 65, 1151-1154.
- Foreman, S. A., & Marmar, C. R. (1985). Therapist actions that address initially or therapeutic alliance in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922-926.
- Gaston, L., Marmar, C., Thompson, L. W., & Gallagher, D. (1988). Relation of patient characteristics to the therapeutic alliance in diverse psychotherap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83-489.
- Gelso, C. J., & Carter, J. A. (1985). The relationship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 155-244.
- Gelso, C. J., & Carter, J. A. (1994). Components of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ir Interaction and Unfolding During Trea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96-306.
- Grayson, H. M., & Olinger, L. B. (1957). Simulation of "normalcy" by psychiatric patient on the MMPI.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73-77.
- Hartley, D. E., & Strupp, H. H. (1978). Therapeutic alliance and outcome in brief individual psychology. Reading before the ninth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Tronto, 1978.
- Heilbrum, A. B., Jr. (1961) The psychological significance of the MMPI K scale in a normal populatio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6, 486-491.
- Horowitz, M. J., Marmar, C., Weiss, D. S., DeWitt, K. N., & Rosenbaum, R. (1984). Brief psychotherapy of bereavement reaction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1, 438-448.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6). The development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In L. S. Greenberg, & W. M. Pinsof (Eds.),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A research Handbook* (pp. 529-556). New York: Guilford Press.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2.

- Kivlighan, D. M. Jr. (1990). Relation between counselors' use of intentions and clients' perception of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27-32.
- Kivlighan, D. M. Jr., & Schmitz, P. J. (1992). Counselor technical activity in cases with improving working alliances and continuing poor working allia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32-38.
- Kokotovic, A. M., & Tracey, T. J. (1990). Working Alliance in the Early Phase o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6-21.
- Malan, D. H. (1976). *The frontier of brief psychotherapy*. New York: Plenum Press.
- Mallinckrodt, B., & Nelson, M. L. (1991).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the form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3-138.
- Marziali, E. (1984). Three viewpoints on the therapeutic alliance: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associations with psychotherapy outcom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27, 417-423.
- McCullough, L., Winston, A., Farber, B. A., & Porter, F. (1991). The relationship of patient-therapist interaction to outcome in brief psychotherapy. *Psychotherapy*, 28, 525-533.
- McKinley, J. C., Hathaway, S. R., & Meehl, P. E. (1946).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VI. The K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0-31.
- Moras, K., & Strupp, H. H. (1982). Pretherapy interpersonal relations, patient alliance, and outcome in brief 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405-409.
- Muran, J. C., Segal, Z. V., Saugat, L. W., & Crawford, C. E. (1994). Patient pretreatment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erapeutic alliance in short-term cognitiv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85-190.
- Paulhus, D. L. (1991). Measurement and control of response bia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Academic press.
- Penman, R. (1980). *Communication Processes and Relationship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Pipper, W. E., Decarufel, F. L., Szkrumelak, N. (1985). Patient predictors of process and outcome in short-term individual.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3, 726-733.
- Pipper, W. E., Azim, H. F. A., & Joyce, A. S. (1991). Quality of object relationship versus interpersonal functioning as predictors of therapeutic alliance and psychotherapy outcom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9, 432-438.
- Reandean, S. R., & Wampold, B. E. (1991). Relation of power and involvement to working alliance: A multiple case sequential analysis of brief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07-114.
- Ries, H. A. (1966). The MMPI K scale as a predictor of prognosis. *Journal of Clinical*



- Psychology, 22, 212-213.
- Ryan, E. R., & Cicchetti, D. V. (1985). Prediction quality of alliance in the initial psychotherapy interview.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717-725.
- Sexton, T. L., & Whiston, S. C. (1994) The status of the counseling relationship: An empirical review,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2, 6-78.
- Strupp, H. H.(1980a). Success and failure in timelimited Psycho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 595-603.
- Strupp, H. H.(1980b). Success and failure in timelimited Psycho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 708-716.
- Strupp, H. H.(1980c). Success and failure in timelimited Psycho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 831-841.
- Strupp, H. H.(1980d). Success and failure in timelimited Psycho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 947-954.
- Zetzel, E. R. (1956). Current concept of 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7, 369-376.

## Counseling Interaction Patterns and Working Alliance as related to the Client Characteristics of Defensiveness

**Hee-Cheon Shin**

**Cha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assess the influence of the client's defensiveness on counselor-client interaction and working alliance, this paper analyzes the verbal interaction between counselor and client,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is interaction and working alliance.

The taped records(first three counseling sessions) of the 30 college student client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ere collected, and one session's full verbatims of each client were coded according to the Penman classification scheme. The base rate for each verbal response category and the related Kappa values were foun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of these values and working alliance scores were found.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1) The cor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counselor reaction was var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lient defensiveness. For example, while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counselor's 'initiative' reaction and working alliance in the high defensiveness group, a positive correlation was shown in the low defensiveness group:

2) The counselor reaction category measures positively or negatively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working alliance, were also var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lient defensiveness. 3) The significant sequence pattern were also var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client defensiveness,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client characteristics; 4) Although the working alliance scores did not significantly vary according to the level of client defensiveness, the clients with normal range defensiveness tended to form relatively high working alliance.